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음 12월 15일) 제17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올 도내 제조업체 경영전망 '암울'

기업경기 전망치 하락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가 주원인... 대외적 영향으로 '트럼프 리스크' 도 꼽아

최근 한국경제에 산적한 난제로 고민이 많은 가운데 경영위기를 타개할 뻔했던 대안이 없는 도내 제조업체는 올해도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상공회의소의뢰가 전북 도내 11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가 '65'로 조사돼 2015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20년전의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음을 반영하듯 지난해 4/4분기 BSI 실적치는 '51'을 기록하며 신용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현수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올해 1/4분기 전망치(65)가 하락하는 이유로는 지역적으로 도내 경제의 한 축인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가 산업계를 강타하는 등 극심한 수출 부진과 내수침체가 주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대미 교역의 정책적 불확실성 가중과

중국의 경제성장 부진 등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정치 혼란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1/4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8개사(16.2%)로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57개사, 51.4%)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돼 올해 경기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기대 심리가 전분기 보다 냉담함을 보여줬다.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항목들 모두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동내의 등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한 섬유업(113)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속기계(67)와 자동차(71), 화학(77) 업종과 같은 도내 핵심 산업들이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극심한 수출 부진과 내수침체가 주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유형별로는 1/4분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부분의 BSI 수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수출기업(100)의 경우에는 대외사정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는 한편, 내수기업(58)은 대선 등의 정치 이슈와 함께 불안한 정치현실로 인해 경기하락을 전망했다.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여조사항으로는 내부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27.2%)'과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26.6%)'을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내 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기업관련 정부규제(16.3%)', '소득양극

화(7.6%)', '가계부채(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외적인 영향으로는 '환율변동(27.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트럼프 리스크(20.7%)'와 '중국 경기둔화(17.3%)'를 선택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심리회복(19.8%)'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으며, '금융시장 안정화(14.4%)'와 '규제개선(13.7%)', '정치 갈등 해소(11.2%)' 등의 응답이 나왔다.



무게 10kg짜리 '슈퍼 닭' 11월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전북 익실군 신덕면 한 농가에서 무게가 10kg에 달하는 슈퍼 닭이 목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닭은 육계종으로 일반 닭보다 4배 이상 무게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1면>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153만명

도, 주민소환 법률·투표법·지방자치법에 따라 확정 공표

전북도는 11일 올해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날 현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9833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6569명이다.

청구권자 총수의 1/20인 7만6492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인 1만5266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과 지방회의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과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인 15만265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분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날 공표된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산출됐다. <안재용 기자>



백순기, 박선이, 이철수, 우종상, 최은자, 민선식
 장병호, 권혁신, 안석, 김태수, 송준상

전주시, 국장급 11명 보직인사 단행

전보·완산구청장 백순기·덕진구청장 박선이 등 7명
 승진·복지환경국장 권혁신·의회사무국장 안석 등 4명

전주시가 11일 국장급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전보로 완산구청장에 백순기, 덕진구청장에 박선이, 기획조정국장에 이철수, 사회적경제지원단체에 우종상, 신성장산업본부장에 최은자, 기획조정국 총무과(교육대기)에 민선식, 기획조정국 총무과(교육대기)에 장병호 등 7명이다.

국장 승진 인사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회사무국장 안석,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등 4명이며, 이용호 완산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은 기획조정국 총무과로 공로 연수발령됐다.

<김영재 기자>

장시호가 건넨 '제2 태블릿PC' 공개

특검 "최순실 소유 확실
 삼성 지원금 사용처 관련
 이메일 등 100여통 확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제2의 태블릿PC'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에 보도된 태블릿PC나 조카인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추가로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 모두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특별팀이 지난 5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한 추가 태블릿PC 역시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태블릿PC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실물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미 정상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

업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재검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복원 작업을 통해 태블릿PC 연락처 이름이 최씨의 본명이 최서원으로 돼 있는 점, 사용된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계정과 일치하는 점, 최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L'자형 잠금 패턴이 사용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최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삼성그룹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100여통도 발견했다. 이메일에는 ▲코레일 K스포츠 설립 과정 ▲삼성의 지원금 수수내역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독일 내 사용처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한편,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대통령 말씀 자료'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